

제목: 당신은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습니까?

천국, 이미 시작되었어요(3)

* 천국(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대전제.

-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롬4.3)

(1)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이다.

(마19.23-24. 막10.23-25. 눅18.24-25)

(2) 천국(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 영생을 얻는다. = 구원을 받는다. (마19.16-

26/막10.17-27/눅18.18-27. 요

3:3,5,15,16,17, 36)

- 마19.23-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막10.23-25.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눅18.24-25.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마13.31-33.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 눅13.18-21.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 "'천국'이란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나 '하나님의 나라'란 표현은 4복음서 모두에서 발견된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 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사실들이 그 둘에 대해 동일하게 언급된다." (윌리엄 맥도날드의 '신자성경주석' 중 마태복음 3장 2절의 주해, p.60 참조)

딤후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 헬. 바실레이아. '나라'임.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아님에 주의!)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기는 경외심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라고 부르는 바로 그 동일한 나라를 가리킨다.” (워렌 위어스비)
-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한 표현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적인 통치자 하나님을 강조하고, 다른 표현은 그 나라 자체를 강조할 뿐이며, 결국 둘은 동일한 나라를 가리킨다.” (존 맥아더)
- “마태가 말하는 ‘천국’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이며, 이것은 마가와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찰스 스윈돌)

-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조지 앨든 레드)
-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곳에서 ‘천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두 표현 사이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마틴 로이드 존스)
- “마태가 사용하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뿐이며,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다.” (존 칼빈)

- 마12.28.(눅11.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 천국)가 이미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 눅17.20-21.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천국)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는 너희(- *바리새인들*) 안에 있느니라’.

* 천국(the kingdom of heaven)
=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

“천국(하나님의 나라)은
이미 시작되었다!”

1. 이미 시작된 천국(하나님의 나라).

(1) '이미'와 '아직'에 대한 성경적 원리.

1)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세가지 측면(- '구원'의 삼중성)

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 칭의(이미, 과거, 구원받았다!)

*엡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벧전1.8-9.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② 죄의 지배(권세)로부터의 구원 = 성화(아직, 현재, 구원받고 있다! 단, 완전성화는 없음)

*빌2.12-13.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벧전2.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③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 영화(아직, 미래, 구원 받을 것이다!)

롬13.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히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not to bear sin, but to bring salvation, NIV)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양면성.

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Universal Church).

= 오직 하나뿐인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로서 눈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Universal Church(우주적, 보편적, 총체적 교회).
(예)엡1.23. 엡2.20-22.

② 지역 교회들(Local Church).

= Universal Church의 축소판(miniature)으로서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시대와 장소에 세워지고 존재하고 소멸해 온, '아직' 불완전하여 많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Local Church(여러 지역 교회들).
(예)고전1.2. 고전1.11.

3)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

①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눅22.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행14.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② 이미 시작된 천국(- 확장 중인 하나님의 나라).

*마12.28.(눅11.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눅17.20-21.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바리새인들) 안에 있느니라. (- 너희 '안에'는 헬라어로 '엔토스' 히몬으로, 그 뜻은 너희 '가운데(among)', 즉,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의미임.

cf. '~가운데(among)'가 아니라 '~안에(in)'는 헬라어로 '엔'임.)

* 장차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이 '완성된 천국(하나님의 나라)'인가?

사65.17-25.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실제로는 천년왕국 임!)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20.4-6.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21.1-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임!)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2) '아직'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2. 당신은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늘 지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는 것
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곳에 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신분’적으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비록, ‘상태’적으로는 아직 세상(때로는, 지옥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만...”

*엡2.5-6.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을 단수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고전1.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지금’ 죄인입니까?”

(- ‘하나님이 보시기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롬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 의인) 되었느니라.

*롬1.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 (- '죄인, 구원받은 죄인, 신분은 의인이지만 상태는 죄인'이 아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눅5.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신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함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임.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알 수 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

딤편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
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
인 중에 내가 고수니라'.

(- '내가 고수니라'의 헬라어 동사 시제는 '현재' 시제
임. 그러나, 이 구절의 앞 뒤 문맥상, 그리스도 안에
서의 현재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자신은 죄인의
대표 같은 존재라는 사도 바울의 겸손의 표현임).

약4.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
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
게 하라.

(-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넓은 의
미로 '죄인들'로 표현하고 있음. 가령, 사도
예수님/히3.1.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행7.38.
'거룩'한 불신 남편과 아내/고전7.14, 등에서
각 용어들이 넓은 의미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임)

고후5.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라.

롬1.17(갈3.11, 히10.38, 합2.4) ~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신분은 ‘의인’ 이지만, 상태는 ‘의인답지 못한 의인’ 입니다.”

“~답게!!”

의인 답게! 성도 답게!

하나님의 자녀 답게!

그리스도인 답게! 제자 답게!

천국(하나님의 나라) 백성 답게!~

***엡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당신은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 나는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습니다.”

천국(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본 천국(하나님의 나라) 메시지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다.

3. 초월적 영역의 천국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 고후12.1-4. ~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글자판을 줘서 알파벳을 배우게 하듯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충대충 말씀하십니다." (찰스 스펀전)
-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는 천국(- *완성된 천국/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는 그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유한한 귀로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을 수가 없고,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상하게 가르쳐주지는 않으시지만, 믿음의 선배들만큼 우리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을 만큼은 계시해주셨다." (옥한흠)

4. '이미 시작된 천국(하나님의 나라)' 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 와 관련이 있음.

* 구원의 삼중성.

(1)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 칭의. (이미)

엡2.8. 벰전1.8-9.

(2) 죄의 지배(권세)로부터의 구원 = 성화. (아직)

빌2.12-13. 벰전2.2.

(3)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 영화. (아직)

롬13.11. 히9.28.

- ‘이미 시작된 천국(하나님의 나라)’
 - ‘성화(- 죄의 지배/권세로부터의 구원)’와 관련.
-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하나님의 나라)’
 - ‘영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와 관련.

따라서,

- ‘이미 시작된 천국(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
 - ‘지옥’이 아니라 ‘죄(사탄)의 지배’.

5. 천국(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미 시작된 천국(하나님의 나라)을 지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천국은 헬라 원어로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으로서, 그 정확한 뜻은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이며, 속격 복수인 ‘우라논’이 사용되었다.

① 하늘(단수).

- 헬. 우라노스(주격), 우라누(속격), 우라노(여격).

cf. 형용사. 에푸라니오스(주격), 에푸라니오(여격).

② **하늘들**(복수).

- 헬. 우라노이(주격), **우라논**(속격), **우라노이스**(여격).

cf. 형용사. 에푸라니오이(주격), **에푸라니오이스**(여격)

(참고로, 에베소서 1:3, 1:20, 2:6, 3:10, 6:12에서 5번 사용된 여격 형용사 '**에푸라니오이스**'는 '**형용사의 명사화**'로 사용된 것으로서 모두 복수인 '**하늘들**'을 뜻한다.)

- ‘천국’의 헬라어 -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 ‘우라논’(속격) - ‘하늘들의’를 의미함.
- ‘~의’로 번역되는 ‘헬라어 속격’
 - 주격적 속격, 소유격적 속격, 목적격적 속격, 출처적 속격, 설명적 속격 등.
- 천국, 즉, 하늘들‘의’ 나라 - ‘출처적 속격’의 의미가 강함. ‘하늘들로부터 왕으로 통치하심’을 뜻함.
- 하나님‘의’ 나라 - ‘주격적 속격’의 의미가 강함.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심’을 뜻함.

-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하늘에는 3개의 하늘들이 있다고 믿었다. (왕상8.27. 대하2.6. 신10.14. 시148.4)

(1) 첫째 하늘(- 물 가운데 궁창. 공중, 즉, 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인 대기권). 창1.6-8. 창1.20.

(2) 둘째 하늘(- 하늘의 궁창. 해, 달,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창1.14-18.

(3)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낙원 등이 있는 곳). 고후12.2,4. 눅23.42-43. 마5.34.

- 빌3.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헬. 우라노 이/스. **하늘들**. 복수 여격 명사)'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들로부터) '**구원**'(- 구원의 삼중성을 상기하라)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 마28.19, 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국/하나님 나라의 왕) ~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계1.12-계2.1.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 엡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헬. 에푸라 니오이스. **하늘들**. 복수 여격 형용사의 명사화)'에 앉히시니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 엡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헬. 에푸라니/오이스. **하늘들**. 복수 여격 형용사의 명사화)' 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을 우리에게 '주시되'

(hath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 눅6.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 ‘가난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로서, 당시의 모든 문헌을 보면, ‘많이 굶어서 배고픈 거지가 절박함을 가지고 구걸하다’는 의미이다. ‘거지’ 나사로의 ‘거지’도 ‘푸토코스’로서 같은 원어가 사용되었음.

- 즉, 거지 나사로 같이 이 땅에서 극심한 가난 상태에 심지어 처해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복이 있는데(= 행복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도심/통치하심’을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 땅에서부터 항상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뜻임.)

- 마6.31-33.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마6.10-11. '나라'(- *문맥상,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빌4.11-13.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cf. 빌4.18-19.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6. '하늘들'에 속한 영적인 복들에 대한 성경의 예시들.

시1.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133.1-3.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
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
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천국/하나님 나라)이로다'.

마5.3-12.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7. 이 땅에서 실제로 천국(하나님의 나라)을 살아
낸 에녹의 본.

*유1.14-15.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
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
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
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
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창5.21-24.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11.5-6.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
라 ~”

* 에녹 버전 :

“주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
라 ~, 내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
늘 나라 ~”

“천국, 이미 시작되었
어요! 당신은 지금 천국
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 복습하기!

딤후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 헬. 바실레이아. '나라'임.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아님에 주의!)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고후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 단 수 속격. 우라누)에 이끌려 간 자라.

(3) 신약 성경의 '하늘'.

① 하늘(단수).

- 헬. 우라노스(주격), 우라누(속격), 우라노(여격).
/ cf. 형용사. 에푸라니오스(주격), 에푸라니오(여격).

② 하늘들(복수).

- 헬. 우라노이(주격), **우라논**(속격), **우라노이스**(여격). / cf. 형용사. 에푸라니오이(주격), **에푸라니오이스**(여격)

- 빌3.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헬. 우라노 이/스. **하늘들**. 복수 여격 명사)'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들로부터) '**구원**'(- 구원의 삼중성을 상기하라)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 엡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헬. 에푸라 니오이스. **하늘들**. 복수 여격 형용사의 명사화)'에 앉히시니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 엡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헬. *에푸라니/오이스*. **하늘들**. 복수 *여격 형용사의 명사화*)' 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을 우리에게 '주시되'

(hath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in **h** **ea**venly **pl**aces' in Christ.)

- 마16.18-19.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하늘들의 나라**)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 복수 여격 명사.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 복수 여격 명사.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의 모습.

*마13.51-52.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 헬라 원어로 '천국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는 뜻임. NIV도 *every teacher of the law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로 번역함.)

*벤허1.12.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천국(하
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의 모자
이크 부분들'!!”